‘행진’·‘하얀나비’…대중음악사의 빛나는 한 줄 노랫말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이 한 줄의 가사

이주엽 지음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동백꽃을 떠올리면 순교자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꽃잎이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게 아닌 송이 채 ‘툭’ 지기 때문이다. 생의 최고의 순간, 붉은 낙화가 결행된다.

가객(歌客) 송창식은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빗대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이라 했다. 1986년 발표한 노래 ‘선운사’는 절정의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동백의 비감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서정적인 시다. 동백의 생리와 이미지를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고 읊었다. 간결한 언어와 시적인 표현이 주는 울림은 간단치 않다.

송창식의 노래 ‘선운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이가 있다. 그는 “낙화와 이별을 담은 한편의 시 같으나, 전통적 선율에 기댄 음악은 다소 능청스러우면서도 여유가 넘친다”고. 바로 작사가인 이주엽 JHN뮤직 대표의 말이다. 그가 이번에 펴낸 ‘이 한 줄의 가사’는 노랫말을 주인공으로 한 이색적인 책이다.

중앙 일간지 기자를 거쳐 2002년부터 음악 레이블 JHN뮤직을 운영해 온 그는 정미조, 최백호, 말로의 음반에 주요 작사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앙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이 모태가 된 책은 한마디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빛나는 문장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몸 안으로 날아들어 온 노래가 한없이 뜨겁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 삶은 곤궁했지만, 그 뜨거움으로 살 만했다. 노래의 꿈은 문학과 음악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노래를 찾아다녔다. 그중에서도 번뜩이는 가사 한 줄의 아포리즘을 건지려 했다.”

저자는 들국화의 ‘행진’,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김정호 ‘하얀나비’ 등 주옥 같은 가사들을 주목한다. 노랫말의 가요사적 의미와 감성, 이면에 드리워진 시대 배경을 특유의 감성적인 문장으로 풀어낸다.

광주 출신 가수 김정호의 ‘하얀나비’를 읽어내는 심미안은 깊고 애처롭다.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김정호의 “음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음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는 김정호의 생애만큼이나 애닯다. 저자는 “그의 가슴엔 사막 하나가 들어앉은 듯, 목소리에 늘 서걱거리는 모래바람이 불어 갔다”고 회상한다.

무엇보다 김정호의 노래에는 남도의 정한이 깊이 배어 있다. ‘음’이라는 허밍엔 허무와 고독의 세계를 정처 없이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이 그려진다. 그를 일컬어 ‘한의 가객’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불운과 맞닥뜨릴 때 삶은 갱신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들국화의 ‘행진’은 작금에 새롭게 다가온다. 물론 노래는 80년대 청춘의 광장에 나부끼던 깃발로 치환된다. 그럼에도 오늘 관점에서 보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라는 가사는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을 상정한다. 불운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밖에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박인희 ‘세월이 가면’,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등 개개의 노래들이 차지하는 음악적 위상과 특징도 만날 수 있다.

가수들에 대한 애정의 단면도 곳곳에 녹아 있다. 저자는 ‘북한강에서’를 부른 정태춘을 “한(恨)과 그리움의 토착적 정서를 독보적으로 그려 온 싱어송라이터”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에 대해서는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서성이던 음악가”로 얘기한다.

책을 읽다보면 가객들의 가사보다, 사실은 저자의 글이 더 시적이라는 느낌과 만나게 된다. 대중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미있는 책으로 손색이 없다.

“가사는 지면이 아니라 허공에서 명멸한다. 써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르는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운명이다. 읽지 말고, 듣고 불러 봐야 한다. 그게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를.”

〈열린책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곱 번째 방 — 오츠이치 지음, 김수현 옮김

어린 남매가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창문 하나 없는 방에는 전구가 하나 달랑 켜져 있었다. 남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과연 이곳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들을 가뒀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도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모두 7개의 방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매일 오후 6시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누가 이들을 방에 가두었을까? 그리고 방을 가르는 도랑에 흐르는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발표하는 작품마다 논란과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마성의 천재작가라 불리는 일본 오츠이치가 펴낸 ‘일곱 번째 방’이은 긴장과 스릴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호러, 미스터리, 판타지, 라이트노벨 등 다양한 장르소설은 물론이고 영화와 연극 대본, 만화, 그림책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넘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두 11개의 단편이 수록된 작품집에는 표제작 ‘일곱 번째 방’ 외에도 ‘ZOO’, ‘카자리와 요코’, ‘SO-far’, ‘양지의 시’ 등 5편의 단편이 옴니버스식 영화 ‘ZOO’로 개봉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일곱 번째 방’은 단순해 보이는 플롯이지만 공포의 단계를 점층적으로 높여나가는 작품이다.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힘의 지배에서 느끼는 인간의 무기력과 수수께끼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방에 갇힌 남매’라는 설정으로 그려져 있다. 도대체 남매를 가둔 이들은 누구이며 이 방에는 어떤 규칙이 숨겨져 있을까.

〈고요한숨·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기어록 — 김원중 지음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과 권력을 다룬 영원한 고전으로 평가 받는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는 치욕을 견디고 펴낸 책으로, 동양 역사서 근간이기도 하다. 가혹한 삶의 조건에서 써낸 글에는 깊은 울림과 행간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사기’에서 가려뽑은 명언명구를 엮은 책이 발간됐다. 동양고전의 대가로 평가받는 김원중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가 펴낸 ‘사기어록’은 장강처럼 흐르는 ‘사기’ 세계에서 뽑은 200여 편의 명구를 담고 있다.

본래 ‘사기’는 ‘본기’ 12편, ‘표’ 10편, ‘서’ 8편, ‘세가’ 30편, ‘열전’ 70편 등 모두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고시대부터 한나라 무제까지 아우르며 공간적으로는 옛 중원을 넘어 주변 이민족의 역사까지 포함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탁월한 안목으로 인간과 세계를 탐구했던 사마천의 명구를 만날 수 있다.

“맹호라도 꾸물거리면 벌이나 전갈만 한 해(害)도 끼치지 못하며, 준마라도 주춤거리면 노둔한 말의 느릿한 걸음만 못하며 (진 나라의 용사) 맹분도 여우처럼 의심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을 결행하는 것만 못하고, 순임금이나 우임금의 지혜가 있더라도 우물거리고 말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이가 손짓 발짓을 하는 것만 못하다.”

책은 ‘나를 다스린다’, ‘타인을 이해하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통치의 기술’ 등 시대를 초월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수신, 경청, 명철, 겸양 의 지뿐 아니라 설득과 소통, 안목, 통찰, 교유 등에 대한 어록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능력, 명예, 포용, 전략에 관한 어록뿐 아니라 민심, 세태, 법치, 경제, 개혁에 관한 명구도 있다.

〈민음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결:거침에 대하여 — 홍세화 지음

2010년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서 부패한 검사 역을 맡았던 배우 류승범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이 대사는 전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유행어로 자리잡았고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갱’이 된다” 등 다양한 패러디를 낳았다.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절과 배려, 환대와 겸손은 손해 보는 일이 되었고, 스스로 나약한 자, 패배자,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었다. 양보도 마찬가지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로 알려진 홍세화 작가는 11년만에 펴낸 ‘결: 거침에 대하여’에서 사람도, 인간관계도, 사회도 모두 섬세하거나 온유하지 못하고 거친 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환대와 배려, 겸손을 품은 사람이 약자가 되는, 정제되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는 둥글어지기보다는 뾰족하고 거칠어져야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조금 더 낮게 걸으며 지배와 복종에 맞서는 자유인으로, 설령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극소수일지라도 함께 연대해 그 길을 한 번 가보자고 외친다.

책은 1부 ‘자유, 자유인’, 2부 ‘회의하는 자아’, 3부 ‘존재와 의식 사이의 함정들’, 4부 ‘난민, 은행장 되다’ 등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권력과 물질이 승리를 구가하는 시대에 나를 짓고, 자유인으로 남기 위해 세속 사회에서 패배자가 될 것을 사유하며 2부에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회의하는 자아가 될 것을 성찰한다. 3부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회의하는 자아를 갖자고 말하며 4부 우리의 이웃과 난민에 대해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